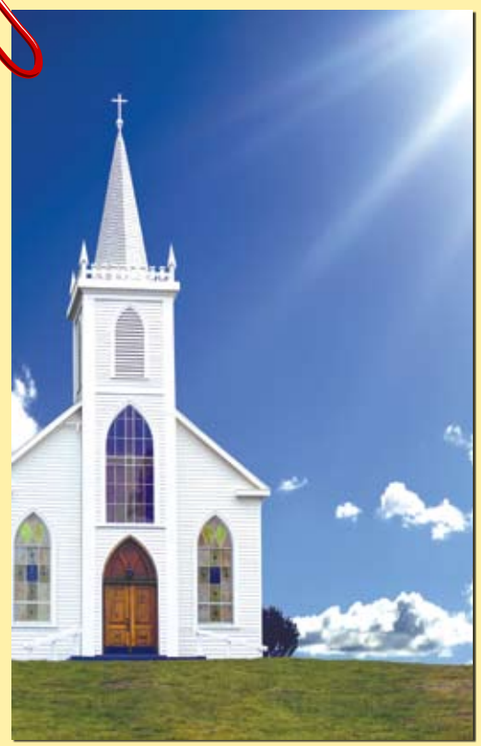
1004나눔릴레이 동행교회를 모집합니다



1004나눔릴레이 동행교회란?

1004나눔릴레이 동행교회는 밀알복지재단의 은혜와 사역을 함께하고 나눔에 동참할 교회를 말합니다. 동행교회가 되면 사역팀이 방문하여 찬양, 설교, 영상시청을 통한 나눔예배를 진행합니다. 나눔에 참여한 교인은 천천클럽(전국민 소액정기기부 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기도와 물질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 말씀사역자 |

홍정길 목사

송봉호 교수

정형석 목사

| 찬양사역자 |

소리엘

소리보기

그 외 유명 국내찬양사역자

참여신청

Tel 02-3411-4665 Fax 02-3411-4779 E-mail miral@naver.com

| 법인사무국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17 한울오피스텔 2층
T.02-3411-4664

경남지부

경남 진주시 상봉동 592-9번지
T.055-753-1456

전남지부

전남 여수시 광무동 917-2
T.061-681-7179

| 장애인복지사업 |

강남구직업재활센터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21번지
T.02-2184-8700

밀알학교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713
T.02-3412-1133

밀알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17
한울오피스텔 2층
T.070-8708-1235

밀알굿윌스토어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28-1
T.02-6913-9100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

성남시 중원구 성대원1동 시곡스타워 210호
T.031-777-9041

안산밀알보호작업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2-3
T.031-402-2484

안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4-10
T.031-403-0078

안산밀알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2-3
다인타운 505호
T.031-401-0902

나눔의 집 그룹홈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45 문정시영APT
9동 105호
T.02-3401-1084

섬김의 집 그룹홈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45 문정시영APT
9동 106호
T.02-449-3478

동행의 집 그룹홈

경남 진주시 상봉동 592-10번지
T.055-753-1457

옥수그룹홈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 320-3번지 401호
T. 031-705-3398

아름드리그룹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809-5 401호
T. 031-414-3171

목련주야간보호센터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2
T. 02-3412-2226

한우리주간보호센터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21
T. 02-2184-8761

해마을주간보호센터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2
T. 02-3412-2222

온유한센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1동 838-3
T. 031-418-9863

| 노인복지사업 |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도봉구 아람길 50-1 (쌍문2동 19-12)
T.02-993-9900

서초중앙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66-17번지
T.02-3474-6080

도봉실버센터

서울시 도봉구 시루봉길 133 (방학3동 441-1)
T.02-955-6080

서울도봉데이케어센터

서울시 도봉구 방학3동 522 북한산팰리스 301호
T.02-955-6090

도봉재가노인지원센터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446-13 정목빌딩 5층
T.02-3494-6060

도봉시니어클럽

서울시 도봉구 방학1동 701-15 거성학마을
APT 상가 3층
T.02-3492-3009

| 지역복지사업 |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2
T.02-3412-2222

대청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711
T.02-459-6332

쌍봉종합사회복지관

전남 여수시 도서관길 14-2(학동)
T.061-681-7179

안산무한돌봄센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5
안산시청주민생활과 내
T.031-481-2621

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2
T. 02)3412-2222

| 아동보육사업 |

목련어린이집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17-12
(개포동 14-2번지)
T.02-3412-1999

부암어린이집

서울시 종로구 신영동 105-10
T.02-396-6226

일원어린이집

서울시 강남구 일원본동 730
T.02-459-3221

중림어린이집

서울시 중구 만리동1가 62-12
T.02-364-7534

청마을어린이집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711
T.02-459-6335

| 문화, 일자리사업 |

밀알아트센터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713
T.02-3411-4661

청밀유통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17 한울오피스텔 5층
T.02-459-8860

www.miral.org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한 알의 밀알

Vol.26 | 2011. 두번째
www.miral.org

Star Interview

박기영, 지창욱씨가 말하는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세상

Real Story

부시맨닥터,
마다가스카르에서 희망의 싸이렌을 울리고 오다

Miral Concert

당신이 머문 동안 시작된 하모니
제8회 밀알콘서트 현장 속으로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한 알의 밀알

Vol.26 | 2011. 두번째
www.miral.org

03 밀알서신
04 밀알에 핀 희망 – 영민이의 행복, 그 잠깐의 시간
06 장애인식개선캠페인 – 스타와 함께하는 희색리본달기릴레이 캠페인
08 그곳이 내게로 다가오다 – 후니의 특별한 소풍
10 사업이야기 – 척추가 107°로 휜 윤석이
12 현장이야기 – 부시맨닥터의 이동진료사업
14 기획기사 – 당신이 머문 동안 시작된 하모니
16 밀알칼럼 – 발달장애 성인의 직업 선택 전략
18 밀알다운 나눔 1 – 그래도 우리는 응원 할 것이다
19 밀알다운 나눔 2 – 모금하며 노는 우리는, 그린빈이예요
20 지금 밀알은
23 History of miral / 밀알복지재단 후원현황

밀알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표지설명 |
마다가스카르 안자베투룽구 산소망학교의 '딴따리'가 칠판 앞에서 수줍은 듯 웃고 있다.

| 섬기는 사람들 |
이사장_홍정길 / **상임이사**_정형석 / **이사**_김명희, 김수지, 김종인, 김주영, 김준수, 노상헌, 배윤규, 손봉호, 양승헌, 이민우, 장평훈, 정현만, 정형철 / **명예이사**_김철영, 박순채 / **감사**_김재훈, 신명철, 황호찬 / **실행위원**_강영실, 강태인, 강한주, 권중돈, 김귀자, 김명환, 김명희, 김혜경, 남현주, 류제룡, 박동수, 박소영, 신민선, 심정식, 이유진, 임종학, 정태충, 정형석 / **전문위원**_김두현, 김미옥, 이천화, 전승만 / **제호**_한 알의 밀알(통권26호) / **발행처**_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 **발행일**_2011년 7월 11일 / **편집기획**_밀알복지재단 미디어홍보팀 / **주소**_135-884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17 한울오피스텔 201호 / **TEL**_대표번호 02)3411-4664 / **FAX**_02)3411-4779 / **디자인**_이룸디지털 / **능력나눔 : 사진**_손준석, 정지영 **일러스트**_박고은

장애인시설 설립에 더이상 주민반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밀알복지재단은 1993년 법인을 설립하면서 전도, 봉사, 계몽 3대 목표를 법인설립의 취지로 삼았습니다. 30년 가까이 장애인선교와 복지현장에서 장애인을 섬겨 오면서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의 문제로 많은 장애인들이 무시와 격리를 당했습니다. 15년이 지난 옛날이야기이지만 밀알학교를 건축할 때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주민 대표들과 대화중에 "장애인은 교육을 받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으므로 특수학교를 지을 필요가 없다." 는 말을 들으면서 울분을 삼킨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 개원준비로 주민들과 갈등하면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오피스텔 건물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입주를 하면 그 건물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건물로 소문이 나서 매도나 임대가 잘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장애인 복지시설로 인하여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주민들에게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은 우리 밀알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사명을 가진 우리 밀알은 인식개선을 통하여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상하거나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친구나 이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어울려 서로 돕고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장애가 없는 사람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장애를 가진 사람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사는 봉사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장애인을 도우려고 봉사를 시작했는데 봉사를 하다 보니 내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더 많은 봉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 주고,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밀알이 꿈꾸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정 형 석
상임이사

영민이의 행복, 그 잠깐의 시간

영민이의 9개월… 그리고 멈춘 시간

영민이의 고요한 숨소리만이 집을 채우고 있었다. 거실 한 켠, 침대 위 고요하게 누워 눈을 깜빡이는 아이. 영민이였다. 영민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9개월 되던 해 후두염을 앓고 잠깐의 심장정지를 겪었다. 이때 의료사고로 인해 영민이는 저산소증이 생겨 뇌병변을 앓게 되었다. 9개월 만에 멀쩡하던 아들이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게 된 것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영민이의 시간이 멈췄다.

면역력이 좋지 않아 폐렴에 걸리면 중환자실에 입원해야했던 영민이의 부모님은 아이가 혹여나 감기에 걸릴까봐 물로 목욕을 시키지 않고 외부로의 출입을 꺼려하게 되었다. 의료사고로 인한 영민이의 장애는 부모님에게 큰 충격이었고 더 이상 병원과 사람들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온 몸이 경직되어 누워지낼 수밖에 없는 영민이는 이후 어떤 치료도 받지 못하고 집에서 누워 지내야만 했다. 주변에서 주간보호센터에 다닐 것을 추천했지만 영민이의 부모님은 여전히 면역력이 약한 영민이가 걱정스럽기만 하다.

함께 살아가자, 우리가족

영민이는 아무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빛에도 반응하지 못했다. 자주 몸을 움직여주고 근육을 풀어줘야 했지만, 외부로의 활동이 두렵고, 비용이 드는 꾸준한 치료를 받지 못해 영민이의 경직은 점점 심해졌다. 한 다리는 경직이 심해 무릎이 펴지지 않았다. 또 다시 의료사고나 폐렴으로 영민이가 생명을 잃게 될까봐 부모님은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근육을 풀어주는 것과 인지를 깨워주기 위한 치료보다 영민이의 생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한 낮에도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영민이의 곁. 공기청정기가 작동되고 있었지만 영민이에게 1시간 전부터 잦은 경련이 일어나고 있었다. 떨리는 눈가와 영민이의 몸. 아빠, 엄마가 일을 나간 낮 시간 동안 홀로 이 모든 고통을 견뎌야 했을 17살 영민이는 한 차례의 경련이 끝나면 살며시 미소짓는다. 고통 속에서 잠시 해방되는 그 잠깐의 시간, 영민이가 가장 행복해 보였다.

우리가족도 행복해지기를...

영민이의 부모님과 영민이 그리고 형, 이 네 식구가 살아가기 위해 엄마, 아빠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지만 그 마저도 요즘 장사가 잘되지 않아 걱정이다. 엄마는 틈나는 대로 집으로 와 영민이를 돌보지만 영민이의 경직과 경련은 날마다 심해져만 갔다. 병원으로의 이동이 어려운 영민이는 물리치료사가 직접 찾아가 근육을 풀어주고, 인지를 깨워주는 방문물리치료가 필요하다. 방문물리치료사의 손길을 통해서 굳어진 몸이 풀어져 영민이가 조금 더 행복해 하기를……. 그리고 경련이 일어난 후 행복해 하는 것이 아니라, 경련없는 생활을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영민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본다. '영민아, 조그만 편안함에도 행복해 하는 너에게 더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를……. 그래서 너를 사랑하는 가족들도 행복해지기를…….'

영민이가 한 차례의 경련이 끝났는지, 살며시 미소를 짓는다.

중증장애아동 방문물리치료사업 '기적을 품은 아이들'

밀알복지재단에서는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아동에게 방문물리치료를 제공하는 '기적을 품은 아이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2회 물리치료사가 중증장애아동의 집으로 방문해 1:1로 물리치료를 진행합니다.

| **지원대상** |
- 18세 이하 뇌병변, 지체장애아동
- 저소득 및 취약계층 (한부모가정, 조부모가정 등)의 장애아동
- 보행이 되지 않아 치료실까지의 이동이 어려운 아동
- 생계 때문에 보호자가 경제활동을 함으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아동

| **접수 및 문의처** |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02)3411-4664

| **정기후원 문의** | 02)3411-4664

| **일시후원** | 우리은행 322-058119-13-00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영상을 통해 '기적을 품은 아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비장애인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스타와 함께하는 회색리본달기 릴레이 캠페인

'스타와 함께하는 회색리본달기 릴레이 캠페인'은 대중들에게 익숙한 사회저명인사 및 연예인들이 릴레이 방식으로 출연하여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자'는 회색리본의 의미를 전하는 캠페인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열아홉 번째 스타인 박기영씨와 스무번째 스타인 지창욱씨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19번째 스타
가수 박기영씨

작은 턱에도 그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당연한 배려"와 "가슴으로 이해"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정도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하기에 불편한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역으로 도와줌으로써 자기만족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장애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경우나 관련된 에피소드 같은 것이 있나요?
가끔 장애인에 관한 사연소개이나 멘트를 할 때 비장애인들이 '이런 것은 장애인에게 너무 실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서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계단이나 턱 때문에 비장애인들도 넘어지기 일쑤잖아요. 흔히, 장애인이 공연장을 왔다고 해서 그 장애인들 때문에 몇 사람이 가서 수고와 노력을 해야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오면 자유롭게 진입하고,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을 말 그대로 자유롭게 해 주는 것이죠.

"두 번 생각하면 달라질 거예요"

20번째 스타
'웃어라 동해야'
지창욱씨

지창욱씨와 함께 달라지는 세상의 중심에 서다

요즘 드라마에 지적장애인들의 눈으로 그려지는 세상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서 지적장애인역과 호흡을 맞추신 기분이 어떠셨나요?
시청자들이 장애인들의 등장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에 그동안 장애인들이 등장하는 드라마가 많이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여진 세상에 많은 흥미를 느끼고 공감을 하고 가슴아파해 주셨어요. '웃어라 동해라' 드라마에서 지적장애인인 안나가 사람들과 대화하며 살아가고,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들도 장애인들의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사회에는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편견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편견이나 차별없이 봐주는게 제일 좋은데 많은 분들이나 주변의 흔한 인식들이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다른 사람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것 없이 같은 동료로서, 친구로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편견을 줄이고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장애'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지 않거든요. 그냥 단편적으로 바라보고 좋지 않은 시선이 적용되는 것이죠. 보이기에 다르니깐요. 그렇기에 장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장애의 문제를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두들 두 번 생각하면 달라질거예요.

여러분들도 '회색리본달기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회색리본달기릴레이 캠페인은 주변에 있는 장애인에게 작은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자는 캠페인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인격으로 존중받고 서로가 배려하는 사회가 될 때까지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회색리본달기는 계속됩니다.

| 참여방법 |

1. 회색리본캠페인 홈페이지
① 회색리본캠페인 홈페이지(http://www.grayribon.org)에 접속
② 나눔프로젝트 → 회색리본캠페인 → 서명

2. 싸이월드 사이좋은 세상
① 싸이월드(www.nate.com)에 접속
② 메인 → 전체보기 → 싸이월드 → 사이좋은세상 → 온라인서명 → "진행중인 서명"에서 밀알복지재단 또는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으로 검색
③ 동영상시청
④ 로그인 후 장애인 인식개선 서명에 동참

후니의 특별한 소풍

휠체어를 타고 간 선유도 공원

후니는 실제 장애인이 아닙니다. 후니의 특별한 소풍은 비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장애인이 겪을 어려움들을 체험해보고 실제 장애인이 된 것 같은 마음으로 쓴 여행기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소풍을 다닐 장애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이 코너를 연재하려 합니다.

글·사진_ 후니취재단

• 선유도 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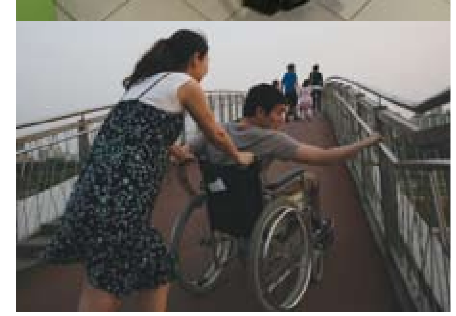
휠체어를 타고 오려면 선유도 공원 정문으로 가는 것이 편리합니다. 승용차 이용 시 장애인 차량은 선유도 공원 정문으로 입장이 가능하고 별도의 주차료도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증이 필요합니다. 선유교 방면으로 선유도를 방문할 경우 경사가 높은 다리 구조 때문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고 이동해야 하는 거리도 꽤 긴 편입니다.

• 카페테리아 나루 •

카페테리아 나루에는 여러 가지 음식과 스넥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층에도 자리가 있지만 계단이어서 올라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도 한강을 보며 먹을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좋습니다.

• 한강 유람선 •

장애인 1~3급 복지카드 소지자는 동반한 1인까지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레스토랑, 뷔페 유람선은 제외이니 유의해야 합니다.



후니는 휠체어를 탄다. 사람들은 종종 후니를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지만 후니는 한 번도 자신을 불쌍한 존재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후니는 늘 당당하다. 그는 그게 자신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후니는 오늘 기분이 좋다. 날씨도 좋고 오랜만에 공원에 갈 작정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목적지는 선유도 공원이다. 건설회사에 다니는 후니는 옛날 정수처리시설이었던 곳을 공원으로 다시 만든 선유도 공원에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다. 그렇지만 한강 한가운데 떠 있는 선유도에 간다는 건 휠체어를 탄 후니에게는 조금 망설여지는 일이었다. 그러다 선유도 공원에서 휠체어를 대여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휠체어를 대여해 준다는 건 휠체어를 타고 공원을 돌아다닐 수 있다는 뜻이었고 후니는 곧 선유도 공원에 가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다.

그러나 후니의 계획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바로 버스 때문이었다. 휠체어로 탈 수 있는 버스는 저상버스뿐이다. 몇 대마다 한 대씩 오는 저상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한참을 기다려야만 한다. 그러나 의지의 한국인 후니는 끝내 기다려 저상버스를 타고 선유도 공원 입구 정류장에 도착했다.

후니는 먼저 선유도 안내센터로 향했다. 낡은 휠체어 대신에 새 휠체어를 빌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앗. 내 휠체어보다 훨씬 좋잖아! 후니는 가져온 휠체어를 맡기고 공원에서 빌려주는 휠체어에 올랐다. 신분증만 있으면 간단히 대여할 수 있다. 자, 이제 공원을 돌아다녀볼까? 선유도는 과거 정수장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독특한 풍경을 자아낸다.

어느덧 노을이 지고 있었다. 이게 바로 한강의 멋이지. 후니는 노을을 감상하며 공원을 산책했다. 큰 경사가 없어서 돌아다니는 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데 그 순간, 후니의 배에 신호가 오기 시작했다. 앗. 갑자기 배가! 화장실이 어디지? 후니는 화장실을 급히 찾아나섰다. 장애인 화장실이 없으면 큰일인데. 휠체어를 타고 좁은 화장실에 들어가는 건 진땀나는 일이다. 만약 장애인 화장실이 없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저기, 화장실이다! 후니는 서둘러 화장실로 들어갔다. 입구가 조금 좁긴 했지만 다행히도 장애인용 칸이 마련되어 있었다.

위기의 순간을 넘긴 후니. 저멀리 보이는 유람선을 보며 감상에 젖었다. 문득 유람선을 타고 싶어진 후니는 스마트폰으로 유람선에 대해 검색을 해보았다. 장애인은 30% 할인! 이런 건 누려야해. 후니는 유람선을 타기로 하고 선착장 방향으로 휠체어를 몰았다. 앗! 그런데 넘을 수 없는 장벽이 후니의 앞을 가로막았다. 엄청난 오르막의 선유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도 쉽지 않은 길이었다. 후니는 하는 수 없이 돌아서야만 했다.

해가 지고 공원에도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휠체어를 타고 한바퀴를 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백점을 주고 싶은 선유도 공원. 독특한 풍경과 여러가지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선유도 공원만의 매력이다. 후니는 오랜만의 나들이에 기분이 좋았고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기면 꼭 다시 오겠다고 다짐하며 공원을 나섰다.

척추가 107°로 휘어진 윤석이의 행복한 나날을 위하여

엄마 품에 안겨 웃는 아이

무더워지던 6월. 수술을 앞 둔 윤석이의 병실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렸다. 조금은 다른 대화. 완전한 단어도 문장도 없지만 맑은 눈빛으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대화하는 윤석이는 혼자 밥을 먹지도, 대소변을 가리지도 못한다. 몸이 점점 굳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장애. 뇌병변장애 1급이었다. 윤석이의 삶은 그렇게 병원과 휠체어에서 시작되었다.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하는 윤석이는 엄마가 안아주자 꺄르르 웃어보인다. 18살, 엄마의 가슴 아픈 아들이다.

휘어진 척추…. 숨 쉴 때마다 느껴지는 고통

딱딱하게 굳은 몸을 뉘인채 살아야 했던 윤석이는 언제 부터인지 척추가 S자로 휘어 자라기 시작했다. 그 증상이 심각해 4년 전 수술 받아야 했지만 수술비 1,500만원을 구할 길이 없어 포기하고 말았다. 훌쩍 커버린 키와 함께 척추의 휘어짐도 함께 진행되었고 4년이 지난 지금, 척추가 107도나 휘어버려 등허리와 골반이 완전히 어긋나고 말았다. 뒤틀린 척추는 몸에 통증뿐만 아니라 심장과 폐를 눌러 윤석이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마음에 멍을 이고 사는 윤석이 엄마

물류창고사업을 하는 아빠는 매달 적자에 빚만 늘어갔고 엄마는 윤석이를 돌보느라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웠다. 몇 년 전부터 형편이 더 어려워져 윤석이의 엄마, 아빠사이에는 대화가 사라졌고, 지금은 별거중이다. 아빠가 양육비로 보내주는 100만원으로 엄마와 윤석이, 윤석이 동생 세 식구가 살아가고 있다. 엄마는 4년 전 수술시켜주지 못한 윤석이를 가슴아파하고, 더 챙겨주지 못하는 동생에게 미안하기만 하다. 마음에 여러 가지 멍을 이고 엄마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간다.

아프지 않도록 해줄게

온 몸이 휘어 똑바로 누울 수도, 앉을 수도 없는 윤석이의 침대는 유난히 판판하기만 하다. 107도로 휘어 편히 누워있지도 못하는 윤석이의 모습에 엄마는 윤석이가 잘 버텨주기만을 간절히 바래본다. 심장과 폐를 누르는 척추 때문에 위급히 수술을 해야 했던 엄마는 수술비를 구하지 못한 채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엄마는 어떻게 돈을 구해야 할지 막막하지만, 수술을 받아서 윤석이가 살아주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윤석아, 엄마가 아프지 않도록 해줄게…."

윤석이가 수술을 받으면 척추가 더 이상 휘지 않고 폐나 심장과 같은 다른 장기들의 악화를 예방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윤석이의 병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고 수술이 꼭 필요하나 수술비를 감당할 방법이 없다. 아프지만 해맑게 웃으며 잘 견디고 있는 윤석이네 집. 수술이 잘 진행되어 아픔을 잊고 함께해서 행복한 나날들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본다.

윤석이의 이야기를 핸드폰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후원문의** 02)3411-4664
• 우리은행 322-058119-13-001 예금주_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수술비지원사업 "새생명릴레이캠페인"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지원대상자** |
•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가정 아동(18세 이하)
• 수술을 받기 위해 한국으로 입국한 외국인(연령제한 없음)
| **지원내용** | 수술비 및 간병비 지원 (250만원 한도)
| **접수기간** | 수시
| **신청방법** | 지역사회 사회복지관을 통해 신청서류 작성 후 본 재단으로 신청 (www.miral.org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 672번 참고)
| **문의** | 밀알복지재단 법인사무국 070-8708-1232 사회복지사 연보라

부적보다 강력한 부시맨,

희망의 싸이렌소리를 울리다!

SBS 희망TV 24

부시맨닥터의 '이동진료사업'

"아프고 배고픈 것은 너희들 잘못이 아니란다.
장애라는 병에 걸렸다고 따돌림을 당하는 너희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이 되어 줄게.
이 의사선생님만 믿으렴!"

부적보다 강력한 부시맨이 출동합니다.
여러분들의 적막했던 마음에 희망의 싸이렌을 켜고
함께 아프리카로 떠나볼까요?

고요한 침묵의 땅,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에 있는 섬나라, 마다가스카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몸에 혹이 생기면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어 고립되어 혼자 지내야 하는 땅을 밀알복지재단이 찾아갔습니다. 병에 걸리는 이유는 저주, 치료방법은 무당의 부적뿐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이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와 치료의 손길이었습니다.

부시맨이 펼치는 아프리카 오지의 특별한 병원

치료받지 못해 죽어가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밀알복지재단은 의사 이재훈선생님과 함께 이동진료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10대 빈곤국 중 하나인 마다가스카르. 약 열 여덟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나라로 도로와 철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주로 강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재훈선생님은 아프리카에서 6년 넘게 아픈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밀알복지재단과 협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동진료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야생에서 희망을 외치는 부시맨 이재훈선생님과 그 이동진료팀!

아프리카 중에서도 평생 의사를 한 번 만나기가 어려운 깊은 오지 사람들. 밀알복지재단에서는 부시맨닥터의 이동진료팀을 통해 오지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과 장애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사흘을 걸어오는 사람들

부시맨닥터 이동진료팀은 마다가스카르 수도인 안타나나리보 국립병원 이토시에서 무료로 현지인들을 돕고 한 달에 일주일간은 마다가스카르 오지 곳곳으로 이동진료를 떠납니다. 한 번 진료를 갈 때마다 약 30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약 20건의 수술을 합니다. 일 년간 하는 수술은 약 300건, 치료하는 환자는 3,500명이지만 이동진료팀은 아직도 누군가를 치료할 수 있음에 해맑게 웃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 3~4일을 걸어오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발에 큰 혹을 달고 사흘을 걸어왔지만 어두워져 치료를 진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보다 밤늦게 흐린 불빛 아래서 수술을 진행하는 의리의 부시맨 닥터는 오늘도 아프리카 오지 어딘가에서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헤어짐과 굶주림이 두려운 다섯남매

미케아 숲속의 다섯남매

수도 안타나나리보에서 사흘밤낮을 꼬박 달려 도착한 곳, 미케아 숲속 소수 부족마을에서는 지난 넉 달 동안 네명의 아이가 먹지 못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밀림 한 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있는 움막……. 세간이라고 할 것도 없이 옹색한 이곳이 다섯남매를 둔 네멜라씨의 보금자리입니다. 하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 서 있을 힘도 없는 아이들이 기다리는 건 엄마가 숲에 나가 구해 올 먹을거리입니다. 새벽에 숲에 들어가 10시간 이상 헤맸지만 구한 건 나무뿌리 하나뿐입니다. 이 뿌리 하나가 네멜라씨 일곱가족을 살게하는 하루 양식입니다.

며칠째 앓고 있는 막내 히카토도 하루종일 굶었습니다. 원래 막내의 쌍둥이 동생이 한 명 더 있었지만 제대로 먹지 못해 죽고 말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은 이 지긋지긋한 배고픔을 자신들의 운명이라 여기며 살아갑니다. 가족은 허기져 들리는 서로의 신음소리가 무섭기만 합니다.

셋째 타이르는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봅니다. 눈에 난 조그만 다래끼에 기생충이 번식해 치료가 필요했지만, 이들은 의사선생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또 떠내보내야 할까봐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 이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 헤어짐과 굶주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옵니다

부시맨닥터의 '이동진료팀'이 꾸는 꿈

미케아 숲속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부시맨닥터로 불리는 이재훈선생님입니다. 이 깊은 산골까지 그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수십킬로 미터 떨어진 원주민들도 다 모였습니다. 탈진해 쓰러져있던 오남매의 막내 파카토도 엄마 품에 안겨 찾아왔습니다. 아파하는 동생이 걱정돼 진료실 밖에서 꼼짝도 안하고 보고 있는 언니 오빠들. 또다시 동생을 떠나보내는건 아닌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이 아이들도 건강이 염려되는 건 마찬가진데 동생을 염려하는 언니는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이 곳 아이들의 한 끼 식사가 우리 돈으로 150원. 천원이면 아이들 여섯명이 한 끼 식사를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단돈 천원은 이들의 생명줄입니다. 이곳에는 100원짜리 항생제가 없고 1000원짜리 영양제가 없어서 제대로 손 한번 써보지 못한 채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안타까워 잠을 줄여가며 진료를 하는 이재훈의사는 빛나는 눈으로 말합니다.

"수십킬로 걸어왔지만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면 이들은 또다시 여린 생명을 부여잡고 초조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아이들과 1:1 결연하는 방법!

① 이나누미(www.enanumi.co.kr) → 정기후원 → 1:1 결연하기 → 밀알복지재단 → 아동선택
② 밀알복지재단(www.miral.org) → 상단 해외아동 1:1 결연하기

당신이 머문 동안 시작된 하모니

장애인식개선사업
제8회
밀알콘서트

Story 1.
제8회 밀알콘서트의 하모니

"우우우우.. 아아아아...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여덟 번째 이야기. 제8회 밀알콘서트의 마지막 곡은 아름다운 앙상블과 함께 음악회에 관객으로 참석한 한 장애인의 큰 화음으로 끝났습니다.

'내가 아는 녀석인가? 음악이 너무 아름다워 함께 하고 싶은 걸까? 혹시, 어디 불편한데가 있는 건 아닐까?' 여러 궁금증이 제 머리를 스쳐지나갔습니다. 아마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주변에 있었던 관객들은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찾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또 그와 함께 찾아온 가족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배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음악회가 여덟 번이나 진행되는 동안 해가 갈수록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의 장애인을 향한 따뜻한 시선, 그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것이 더 깊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하는 것, 즉 함께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돕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상황이 어려운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도움을 주는 행위는 내게 만족감, 뿌듯함을 가져다주지만, 함께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이 내 권리를 포기하고, 그것이 불편이라는 사실을 잊을 때까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날 음악회에 함께 함으로 더 큰 하모니를 만들기 시작했으며 각자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에도 '함께 사는 사람'으로 살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음악회는 끝났지만 음악회를 통해 모인 기금으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밀알복지재단은 수서동에 장애인을 위한 주 · 단기 보호시설을 설립하고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수서동의 이웃들은 기꺼이 담을 낮추고,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들은 세상 밖으로 나와 함께 살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모두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글_ 경영기획팀 원정분대리

Story 2.
밀알콘서트란?

장애 때문에 음악회를 나오기 불편한 여러 가지 사정들까지 해결해 주는 음악회가 있다면? 그래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음악회를 감상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꿈꾸는 밀알콘서트는 이러한 물음으로 2004년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장애인들만의 축제가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축제, 이것이 진정한 장애인의 사회통합으로 가는 길목일 것입니다.

'그들만의 세계'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 비장애인들이 누리는 것들을 함께 누리고 호흡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음악회의 시작은 공연장에서가 아닌 장애인이 집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차량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함께 음악회를 감상하러 나올 수 있는 친구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밀알콘서트입니다. 그렇기에 밀알콘서트는 장애인 음악가와 비장애인 음악가가 함께 무대에 오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입니다.

Story 3.
제8회 밀알콘서트 결과보고

공연내용								
구 분	아동공연			일반공연				
일 시	2011년 4월 20일(수) 11:00			2011년 5월 2일(월) 20:00				
장 소	밀알아트센터 세라믹 팔레스 홀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출 연 진	카이로스앙상블, 온누리 사랑챔버			카이로스앙상블, 온누리 사랑챔버 소프라노 김수연, 바리톤 공병우, 오보에 조정현				
사 회	카이로스앙상블 양고운			도슨트로봇 아띠, 아나운서 박나림				
출연시간	11:00 ~ 12:00 (60')			20:00 ~ 22:00 (120')				
입 장 료	10,000원(장애아동 및 인솔자 무료)			VIP석	100,000원	S석	30,000원	
				R석	70,000원	A석(3층)	20,000원	
관람대상	장애아동 및 일반아동			일반후원자, 장애인				
참석인원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인솔자	계	장애인	비장애인	계	
	36	372	64	472	250	1,621	1,871	
	장애인		비장애인		계			
	286		2,057		2,343			

제8회 밀알콘서트 결산					
수입			지출		
내역		금액	내역		금액
일반후원금	교회후원금	17,675,000	아동공연	출연료	700,000
	기업 및 단체후원금	130,853,870		행사진행 및 홍보인쇄비	712,200
	개인후원금	144,812,310		출연료	11,400,000
정기후원금(연간환산)		51,655,000	일반공연	기획비	3,683,700
				행사진행 및 홍보인쇄비	9,748,990
				대관료 외	9,768,000
수입합계		344,996,180	지출합계		36,012,890
순수입 308,983,290		• 후원금은 장애인 주 · 단기보호센터 설립을 위해 사용됩니다			

Story 4.
밀알콘서트 후기

이번 밀알콘서트는 마치 너무나 잘 차려진 밥상과도 같았다. 아름다운 예술의 전당이라는 상 위에, 최고의 밥상을 차리기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기쁨으로 섬겨주시는 자원봉사자분들과 밀알 스탭분들의 부지런한 섬김들, 깊은 맛을 내는 음식들부터 비록 깊은 맛을 내지는 않았지만 정성과 애환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눈물이 나올 수 밖에 없었다.

순 정 현 회원님

장애를 가진 사람과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하는 세상을 만나고 왔다. 콘서트 중간 중간에 들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소리 조차도 아름답게 들린 시간이었다.

이 정 숙 회원님

직접 콘서트를 관람하고, 즐거워하는 장애인들을 보면서 왜 사회통합의 슬로건을 내걸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외출을 하는 것도 불편한 그들에게는 콘서트를 관람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의미 있고, 세상과 어우러질 수 있는 통합의 장임을 가슴으로 느끼게 되었다.

이 희 성 스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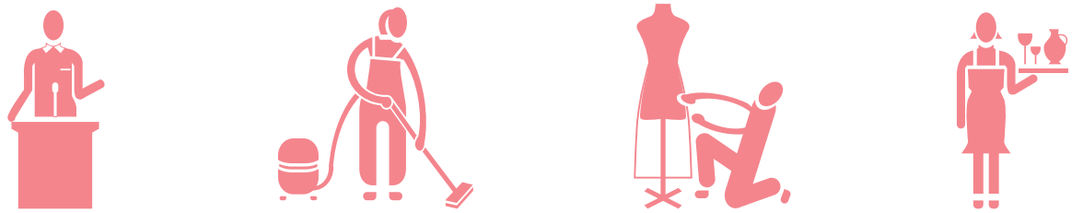
장애인들을 조금이나마 더 가까운 내 이웃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해설을 맡아서 해 주었던 로봇 친구 아띠도 귀여웠다. 즐겁고 행복한 감동이 있는 2시간을 채워주신 밀알복지재단에 감사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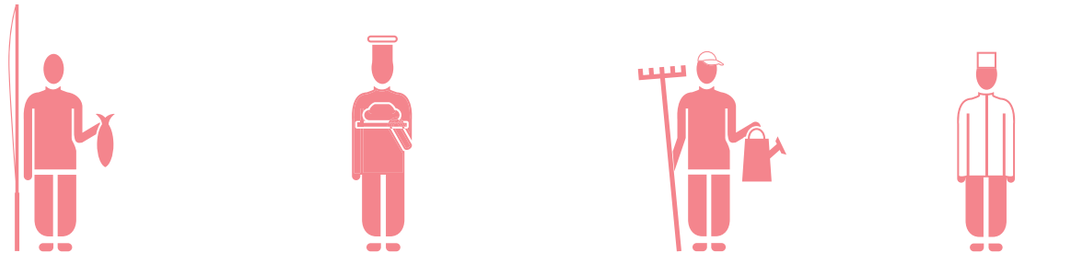
이 정 우 회원님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여기를 방문해 주세요
밀알복지재단 홈페이지(www.miral.org)
왼쪽 배너 **'함께하면 통합니다! 밀알콘서트'** 클릭!

발달장애 성인의 직업 선택 전략

양 문 봉 밀알학교 교장





최근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다양하고 탁월한 직업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소개되어 왔기에 기능 수준에 관계없이 취업을 희망하는 발달장애 성인들이 늘어가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를 가진 성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망한 특정 직업분야들이 널리 알려지고 있어서 사춘기 시기부터 이에 대한 준비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대세다. 특별히 개인의 적성과 성향에 맞춘 직장 혹은 보호 작업장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잘 숙지하게 된다면 최적의 직장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음은 개인의 적성과 직업 특성들을 기초로 하여 적절한 직업을 선정할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하려고 한다.

첫째, **개인의 성향을 파악하여 취업할 작업장과 직장의 특성을 잘 살펴야 한다.** 미국의 굴지의 유통업체인 월마트에서는 발달장애 성인들의 이런 성향을 고려하여, 개별적 공간을 선호하면 매장보다는 사무실이나 개인 작업실 혹은 보관소에 근무처를 배치하고, 좁고 폐쇄된 공간보다 열린 공간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면 매장에 배치하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과 성인은 사물과 환경의 전체적인 윤곽을 인식하기 보다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을 인식하는 공통된 경향이 있다. 이를 "숲을 보기보다는 그 안의 한 그루의 나무를 본다"거나 "전체보다는 일부를 본다"는 성향으로 해석한다. **세밀한 부분의 특성을 통해 고예술품의 제작연도를 알아내거나 진품과 가짜를 가려내는 고예술품 평가사에게도 가장 필수적인 적성이 될 수 있다.**

셋째, 대부분의 발달장애 성인들은 팀원들과 더불어 팀웍을 이루고 협력하는 일에 익숙하지 못하다. 어쩌면 협력하여 무언가를 해냈던 적이 있다면 가족과 함께 한 기억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향을 적성으로 고려한다면 탁월한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적성은 산악구조나 산림보호를 위해 온 산을 다녀야 하는 산악 레인저에게는 가장 필요한 조건이 될 것이다. 정원사나 원예업자, 소규모 식당 주방장, 시계수리 전문가, 베이커리 파티쉐, 고문화 발굴을 위해 구석진 곳을 탐험하는 고고학자, 등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적성이기도 하다.

넷째, 발달장애 아동과 성인들은 대체로 상징적인 내용과 관련된 언어와 형이상학적인 이론들을 표현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시각적 사고자들이다. 그렇지만 반대로 시각적 사고체계이어도 절대 약점이 되지 않는다. **시각적인 선을 이용해서 건축물의 윤곽들을 표현해 내는 건축기사와 시각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고가품의 예술품들을 적절하게 배치할 책임을 갖고 있는 박물관 큐래이터들에게도 이런 시각적 사고체계의 적성은 필수적이다.**

다섯째, 발달장애 아동과 성인들의 공통된 성향은 하나의 패턴을 좇거나 원칙, 규정과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다. 발달장애 아동과 성인들은 하나의 패턴을 어기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못하며 룰과 규정을 지나칠 정도로 지켜낸다. 매뉴얼 대로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미생물실험실에서의 연구원들도 이런 적성이 필요하다. 또한 규정을 강조하는 군사요원과 중화기 무기를 다루는 전문요원들도 규정에 충실해야 할 책무와 적성이 필요하다. **규정을 준수하고 패턴을 중요시 여기는 성향은 절대 약점이 아니라 직업선정에 있어서 큰 장점과 적성이 될 수 있다.**

문화리더름

그래도 우리는 응원할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해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겪어봤기에,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견뎌낼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응원해 주고 싶어요.

"한 분야에 10,000시간을 노력해야 진정한 자신의 실력이 나오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정말 10,000시간 노력해봤어요. 3년이 조금 넘는 시간……. 저는 전문가들에게 물어가며 조금씩 배워 이제 저만의 디자인을 하게 되었어요."

34살의 젊은 CEO 정충훈씨의 좌충우돌 스토리와 나눔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자신을 '어정쩡하지만 꿈꾸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그가 디자인하고 싶은 세상과 꿈. 함께 들여다 볼까요?

세상과 나를 디자인하다

저의 꿈은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뭘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몰라 허황된 꿈만 꾸는 어정쩡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3년 전부터 의상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고 의류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어요.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교육을 받고 의상학과를 나와 해외로 유학을 다녀와야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저는 전문교육을 받은 적도 해외유학을 다녀온 적도 없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홍대에서 저만의 디자인으로 남성복을 디자인하기에 이르렀어요.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생활비가 없어서 나쁜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당장 낼 월세값도 원단비, 공장공정비도 없었거든요. 기업의 사장들이 왜 자살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구요.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비상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견뎌 지금에 이르게 되었어요.

너는 잘할 수 있는 아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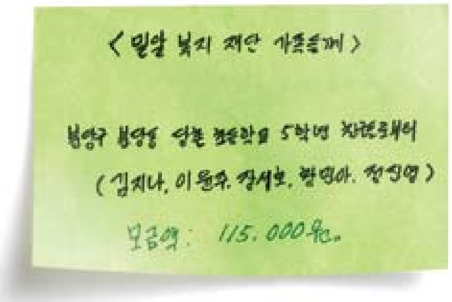
후원을 시작하게 된 것도 제가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극복해 봤기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장애의 어려움으로 꿈을 잃고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너는 할 수 있는 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였어요. 지금은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꿈을 잃지 않는다면 미래를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도 밥을 한 끼 먹지만...

20대에 세운 목표가 있었어요. 해외아동 2명, 국내아동 2명, 장애아동 1명, 어르신 1명을 후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세운 목표를 다 성취해 냈어요. 이제 지속적인 응원이 더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많이 넉넉하지 않아요. 제가 후원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응원하기 위해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에 한 끼를 먹어요. 저와의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정충훈회원님은 현재 밀알복지재단의 국내아동과 1:1 결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모금하며 노는 우리는~ 그린빈이예요!



유난히도 추웠던 지난 봄,
12살 소녀 다섯명이 뭉쳤다!
그들이 모인이유는?
모금놀이하려구요!

우리들이 왜 모였냐구요?

부모님께 받은 용돈을 저축해서 또는 심부름 값을 받아서 기부하 는 것은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들이 직접 모금해서 기부하면 어떨까 싶어 시작했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우리끼리 신나게 놀고, 모금도 하고, 기부도 하고! 아직 초등학생이지만 우리도 의미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기분 좋았어요.

그린빈! 팜플렛과 둥글레차로 미션 성공!

우리들이 선택한 것은 공원이나 길에서 차를 팔아 모은 돈을 기부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팜플렛을 만들고 팔 차를 직접 사러 돌아다녔어요. 옥수수차, 코코아, 커피를 팔았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뜨거운 물을 구하는 일은 엄마에게 해 달라고 졸랐어요. 엄마도 흐뭇하게 우리들을 도와주셨어요.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자존심 있는 꼬마 아가씨들

아침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팔았어요. 눈도 내리고 추웠지만 이대로 포기하기는 싫었어요. 내가 조금만 추워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대됐거든요! 산책하러 오신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께 차 드시라고 직접 컵을 날라 드렸어요. 돈이 없으신 분들은 추운 날씨에 따뜻한 음료를 먹어서 좋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기부해서 좋은 시간이었어요.

입소문 탄 우리들의 모금놀이

총 옥수수차 40, 코코아 40, 커피 50개를 팔았어요! 지나가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다 붙잡아서 저희 취지를 설명하고 시간이 지나니깐 입소문이 나서 동네사람들이 더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급하게 하느라 뜨거운 물을 바지에 엎었는데 짜증나기 보다는 오히려 따뜻해서 좋았어요! 여름방학에는 시원한 레몬에이드를 팔고 싶어요.

그린빈_김진아, 이윤주, 장서호, 황민아, 정진영

초등학생 자원봉사단 '그린빈'은 모금활동을 한 후 밀알복지재단에 전액기부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밀알복지재단을 통해 '그린빈'의 뜨거운 활동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법인사무국 소식

제8회 밀알콘서트 성공리에 개최

지난 4월 19일과 5월 2일에 1,2회로 진행되었던 제8회 밀알콘서트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 되었다.

1004나눔릴레이 1호 동행교회, 성덕중앙교회에서 나눔예배 진행

법인사무국의 새로운 사업인 '1004나눔릴레이'는 밀알복지재단과 사역을 함께하고 나눔에 동참할 교회에 찾아가 나눔예배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시작되었다. 동행교회 1호는 지난 5월 15일 성덕중앙교회에서 진행되었다.

장애인직업재활상품, 소셜커머스를 통해 판매

법인사무국에서는 소셜커머스 '지니'와 협약을 맺고 밀알베이커리의 상품을 '지니'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했다. 소셜커머스지니와 우리재단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의 상품대행을 통해 '착한 소비'를 위한 캠페인과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마다가스카르 '이동진료사업' SBS희망TV를 통해 방영

법인사무국에서는 지난 5월 5일과 6일 이틀동안 밀알학교에서 9개의 NGO와 함께 SBS 희망 TV 모금방송을 진행했다.

일본지진구호금 JEN에 2,272,600원 전달

법인사무국에서는 지난 4월 일본 도호쿠지역의 미야키의 이시노마키시에서 긴급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JEN에 긴급구호기금으로 마련한 2,272,600원을 전달했다.

아프리카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모기장보내기 캠페인'

우리 법인은 아프리카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모기장 보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고, 월드휴먼브리지, 유엔재단과 함께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말라위 소식

지금 말라위에서는 장애인들의 삶의 터전을 위한 교육 및 훈련과 주민들을 자립을 위한 소액대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5곳으로 시작했던 소액대출사업이 자원봉사의 도움과 현지 사회복지사들의 연합으로 9곳으로 확장되었다.

새생명릴레이캠페인 대상자 모집공고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가정 18세 이하 아동이나 수술을 받기 위해 한국으로 입국한 외국에게 수술비 및 간병비를 지원합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 글을 참조하세요.
문의 : 법인사무국 사회복지사
연보라 070-8708-1232

'2011년 위기극복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정보공개에 동의한 사연제공 저소득가정(정기후원대상자 제외)에게 생활안정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보장구구입비 등을 지원합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 글을 참조하세요.
문의 : 법인사무국 사회복지사
연보라 070-8708-1232

2011년 국내사업장투어프로그램 "나도 밀알이다!"-노인복지편 참여자 모집

밀알복지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노인복지 사업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밀알복지재단의 역사와 정신이 살아있는 복지사업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일시 : 2011년 7월 19일(火)
2. 장소 : 도봉노인종합복지관→도봉데이케어센터→도봉실버센터→서울도봉데이케어센터
3. 참가비 : 10,000원 (식비포함)
4. 문의 : 법인사무국 연보라 간사 070-8708-1232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글을 참조하세요

산하시설 소식

강남구직업재활센터, 희망나눔 일자리 박람회

강남구직업재활센터에서는 4월 27일 2011년 강남 희망나눔 일자리 박람회를 진행하였다. 장애인관 총 25개의 부스와 10개의 부대부스를 운영하였으며, 취업을 희망하는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하였다.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 도전! 도전! 바리스타를 꿈꾸며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에서는 4월부터 근로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도전! 도전! 도전! 바리스타를 꿈꾸며』를 진행하며 장애인들이 사회인으로서의 꿈을 키우도록 돕고 있다.

해마을주간보호센터, "JOYFUL" 봄소풍

해마을주간보호센터에서는 5월 13일(금), 'JOYFUL'활동으로 서울대공원을 다녀왔다. "JOYFUL"은 매월 금요일 동서발전(주)과 함께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음악회, 영화관 등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하고 체험하는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이다.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제6회 싱싱운동회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5월 4일 '제6회 싱싱운동회'을 개최하였다. 어르신 1,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체험부스가 마련되어 즐거운 축제한마당이 되었다.

도봉실버센터, 어르신들의 야외나들이

도봉실버데이케어센터에서는 5월 17일 국립수목원으로 봄나들이를 다녀왔다.

밀알학교, 밀알부모대학 개최

밀알학교의 상반기 밀알부모대학이 지난 5월 3일(화)에 개최되었다. 6주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시되었다.

안산장애인종합복지관, 2011년 이용자 가족운동회

안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5월 14일 구룡체육관에서 '2011년 이용자 가족운동회'를 개최하였다.

안산밀알보호작업장, 동해로 떠나는 캠프

안산밀알보호작업장에서는 7월 28~29일 까지 동해바다로 여름 캠프를 떠난다. 캠프를 통해 근로장애인들이 긍정적인 동료애를 갖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서초중앙노인종합복지관, 서초실버가요제 "孝를 전합니다"

서초중앙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5월 4일 서초구민회관에서 어버이날 기념행사로 서초실버가요제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였다.

서울형사회적기업 청밀, 삼성유기영농조합법인 협력체결

서울형사회적기업 청밀에서는 삼성유기영농조합법인과 협력을 체결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취약계층(노인, 장애인)이 참여하는 친환경유기농산물을 재배에서 배송까지 하고 있다.

도봉재가노인지원센터,
'투게더우리사랑' 장수사진 촬영
도봉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는 5월 12일(목) 우리은행 '투게더우리사랑' 후원으로 어르신 40여분께 건강을 기원하며 장수사진을 찍어 드렸다.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We대한 가족 탄생 개최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5월 21일(토)에 센터내에서 강남열린가족축제 "We대한 가족 탄생"을 성공리에 진행하였다.

대청종합사회복지관,
꿈 키움 해외체험프로젝트 '나도 해외간다'
대청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저소득가정아동에게 해외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원동 저소득가정 내 초등학생 10명이 지난 6월 25일~26일, 3박4일간 중국 북경으로 탐방을 다녀왔다.

일원어린이집, 어버이날 맞이 노인정방문
일원어린이집에서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5월 6일에 일원노인정을 방문하여 카네이션 꽃 달아 드리기, 노래부르기, 안마해드리기 등의 프로그램을 하였다.

중림어린이집, 어린이날 행사
중림어린이집에서는 5월 3~4일 어린이날 행사를 하였다. 중림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이 준비한 다양한 동극을 보며 즐거운 어린이날을 보냈다.

도봉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직무교육 실시
도봉시니어클럽에서는 6월 2일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면서 보다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해 1차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Well-being Family"
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5월 18일(수), 여에스더 박사와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건강관리 교육 "Well-being Family"을 진행하였다.

목련어린이집, 공룡교실의 친구초대행사
목련어린이 집에서는 5월 4일 장애아동 방과 후 학급(공룡교실)에서 친구초대행사를 진행하였다.

부암어린이집, 봄 소풍
부암어린이집에서는 5월 12일 남경수목원으로 봄 소풍을 다녀왔다.

청마을어린이집, 체육대회 진행
청마을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5월 4일 원아전체 및 학부모님과 함께 체육대회를 하였다.

밀알복지재단 후원사용내역보고